

중국의 채권 · 외환시장 변화가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문익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흥지역연구센터 중국팀
부연구위원
ijmoon@kiep.go.kr

양다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국제경제실
국제금융팀 전문연구원
dyyang@kiep.go.kr

허 인 전남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inhuh@chonnam.ac.kr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중국은 2013년 10월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를 발표하면서 금융개혁에 대한 실험을 시작함.
 - 세계의 관심이 중국의 금융시장에 집중되는 이유는 중국이 제조업 생산 분야에서는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 금융 산업은 규모에 비해서 성숙한 시장을 형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임.
- 중국의 채권시장은 아직까지 발달하지 않아 공개시장 조작정책은 한계가 있음.
 - 중국의 통화정책은 중앙은행의 시중은행에 대한 단기자금 대출금리를 이용하지 않고 대출 및 예금금리를 직접적으로 통제하고 있음.
 - 현재 중국의 채권시장 규모는 GDP 대비 50% 이상으로 ASEAN 국가들과 비교해서는 큰 편임.
 - 채권시장이 개방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의 무역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동아시아 채권시장에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음.
 - 중국이 채권시장 자유화 및 금리자유화를 추진하면서 금융시장이 점차 확대된다면,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커질 것임.
- 중국 외환제도의 변화와 개혁은 중국의 수출입에 크게 영향을 끼칠 것이며, 우리나라와의 무역에도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분석이 필요한 시점임.
 - 2013년 11월 20일 달러당 위안화 기준 환율은 6.1305위안으로 1994년 관리변동환율제를 도입한 이후로 최고치를 기록함.
 - 위안화 환율의 점진적인 절상은 향후 국제통화체제에서 중국 위안화가 갖게 될 지위와도 관련이 있으며, 글로벌 불균형(Global Rebalancing)의 해소 등과도 매우 밀접함.
 - 중국의 외환제도 변화는巴斯켓 제도를 채택한 2005년 이후로, 위안화 환율의 일일 변동폭을 1%로 확대하는 등 시장결정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외환제도를 자유화하고 있음.
- 중국은 세계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점을 이용하여 위안화 국제화를 추진하고 있음.
 - 중국 전체 무역에서 위안화 결제가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대까지 상승하는 등 무역결제통화로서 지위가 높아지고 있음.
 - 현재 홍콩이 실질적인 위안화 허브 역할을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 런던 등도 위안화 허브 역할을 희망하고 있음.

- 한국은 중국과의 무역에서 큰 폭의 흑자를 기록하고 있어, 위안화로 무역결제를 할 경우 위안화 자금이 유입될 것임.
- 따라서 무역을 통해 축적될 것으로 보이는 위안화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역량을 구축함으로써 장기적으로 위안화 허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무역뿐 아니라 금융에서도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발생하게 될 리스크 및 주변국들과의 관계 혼란 여부 등을 고려하여 신중한 정책적 대응이 필요함.
- 중국경제가 아시아 및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상황에서 중국 금융시장의 자유화정책은 아시아 금융시장 및 한국에 영향을 줄 것이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임.

● 본 연구를 통해서 중국의 금융개혁 중에서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변화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려고 함.

- 물론 아직 중국의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은 세계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미미하며, 특히 한국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임.
- 그러나 실물부문에서 중국이 세계경제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력을 감안하여 볼 때, 국제금융시장에서 중국의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인가를 평가하고 앞으로 변화요인을 전망할 필요가 있음.
- 본 연구의 목적은 중국의 채권시장과 외환시장의 현황을 자세히 파악해서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고 미래를 전망함으로써 기초적인 자료를 제공하려고 함.
- 비록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아도 중국 금융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한국에 미칠 수 있는 경로를 파악하여 적절한 대응방안을 모색하려고 함.

2. 조사 및 분석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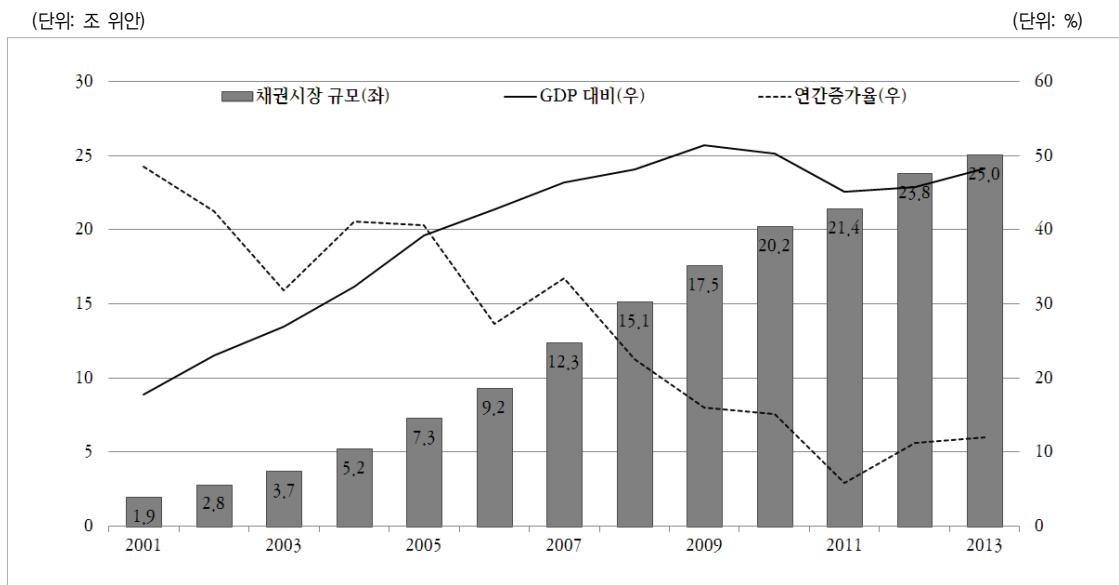
1) 중국 채권시장의 변화와 영향

● 중국 채권시장은 1997년 은행간 시장이 개설되고,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면서 본격적인 성장기에 접어들었음.

- 중국 정부는 채권시장 활성화를 위해 가장 활성화된 유통시장인 은행간 채권시장의 참가자격을 점차 확대하였고 자산유동화증권과 중기어음, 집합어음, 기업어음 등 상품을 다양화함.
- 다만 해외투자자의 중국 채권투자나 민간기업의 채권발행과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많은 제한이 남아 있음.

- 중국의 채권시장 규모는 빠르게 확대되었지만 경제규모 등을 고려할 때 아직까지 발전이 더딘 상황임.
- 중국이 세계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0%인 반면, 세계 채권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5%에 불과함.

[그림 1] 중국 채권시장 규모



주: 1) 위안화 표시 채권의 발행 잔액 기준(미국 달러 표시 채권의 발행 잔액은 2013년 7월 말 현재 13억 6,500만 위안에 불과)

2) 2013년은 7월 말 기준이며, 2013년 7월의 GDP 대비 비중은 2012년 GDP를 사용하여 계산하였고, 연간증가율은 2012년 7월 대비로 계산하였음.
자료: 중국채권망(<http://www.chinabond.cn>); CEIC DB (검색일: 2013년 8월 23일).

● 중국 채권시장의 불균형한 시장구조로 문제점으로 지목되고 있음.

- 채권 발행 잔액을 기준으로 전체의 74%가 국채와 금융채인 반면 회사채 비중은 9%에 불과함.
- 회사채는 대부분 국영기업이 발행함으로서 채권시장이 아직까지 민간의 신용창출 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음.
- 외국인투자자에게 매우 제한적으로 접근을 허용하는 등 대외개방 수준이 낮음.
- 최근에는 가장 큰 채권 유통시장인 은행간 시장을 적격외국인투자가(QFII)들에게 개방했지만 전체 포트폴리오 투자금액 승인한도가 채권시장 발행 잔액의 1.1%에 불과함.

● 향후 중국 채권시장은 역외 채권시장의 육성, 역내 채권시장 개방, 회사채 발행 증가 등의 방향으로 발전될 것으로 예상됨.

- 위안화 국제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위안화에 대한 수요를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위안화의 투자통화로서의 역할 확대를 모색해야 함.
- 일본, 독일, 호주 등 기존의 사례에서도 자국통화의 국제화 추진 시 비거주자의 채권발행 확대를 먼저 시도하였기에 중국 정부도 역외 위안화 채권시장을 육성하는 데 힘쓸 것으로 보임.
- 자본계정 자유화는 중국 금융시장의 낮은 발전수준과 자본시장 개방의 부작용을 우려하는 중국 정부당국의 신중한 입장을 감안할 때, 완만한 속도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경제 성장 방식 전환을 위해 기존 시스템하에서 자본조달이 어려웠던 중소 민간 기업들의 회사채 발행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2) 중국 외환시장의 변화와 영향

● 중국의 환율제도는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과 함께 변화하여 왔으며 현재도 진행 중임.

- 개혁개방인 1978년 이전에는 계획환율제도를 운영하다가 이후에 한동안 이중환율제도를 운영하였다.
- 1994년 1월부터 일원화된 관리변동환율제도를 도입하면서 경제상황과 개혁의 진행속도에 따라서 일일 변동폭을 고정하거나 변화시키는 고정환율제와 관리변동환율제를 운영함.
- 현재 중국환율제도 개혁은 위안화 국제화, 자본계정의 자유화 등과 같이 추진하고 있음.
- 18기 3중전회에서 나타난 금융개혁을 살펴보면, 자본계정 개방이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 환율제도 개혁은 자본계정 개방과 금리 자유화와 함께 동시에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됨.

[표 1] 중국 환율제도의 변천(1981년 이후)

기간	제도	관련된 주요 조치들	일일변동폭
1981년 1월~1993년 12월	이중환율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외, 대내 환율을 차등 적용 - 1980년 이전에는 위안화가 고평가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중환율제를 도입함으로써 평가절하 단행 	
1994년 1월~1997년 12월	관리변동환율제	- 이중환율제 폐지, 환율단일화	±0.3%
1997년 12월~2005년 7월	사실상 고정환율제	- 8.28위안/달러에 고정	-
2005년 7월~2007년 5월	관리변동환율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개국 통화로バス켓을 고정 - 3년간 17.5%의 평가절상 	±0.3%
2007년 5월~2008년 6월		- 일변동 ±0.5%로 확대	±0.5%
2008년 7월~2010년 5월	사실상 고정환율제	- 6.83위안/달러에 고정	-
2010년 6월~2012년 3월	관리변동환율제	- 복수 통화バス켓제도로 복귀	±0.5%
2012년 4월		- 일일 변동폭 확대	±1%

자료: 조종화 외(2010, p. 37)와 한국은행(2012, p. 271)을 바탕으로 저자 재정리.

3)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 분석

- 한국 채권시장에 대한 중국 채권 금리의 직접적인 영향은 없었음.
 - 중국 채권 금리 변동이 한국 채권 금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직접적인 영향은 적었으나 경기 및 물가 동조화, 정책 동조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간접적인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였음.
 - 그러나 두 경로를 제외하면 중국 채권 금리 변동이 우리나라 채권 금리에 미치는 영향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음.
 - 향후 중국이 금리 자유화를 통해서 금융시장을 개방한다면, 경기, 물가, 정책의 동조화 이외 경로에서도 한국의 채권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가능성 있음.
- 원/위안 환율의 결정요인들에 대해서 실증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한국과 중국 간 환율의 변동에 있어서 채권금리의 차이와 기준 금리의 차이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됨.
 - 두 나라간 채권 금리 차이는 이자율 평형 조건에서 예상하는 방향과 일치하는 효과를 보여줬으며, 양국의 통화정책을 나타내는 기준금리의 차이는 통화정책 실시의 배경 및 그 효과가 나타나는 시차 등의 이유로 예상되는 방향과 반대의 결과를 보여줌.
 - 위안/달러 환율의 변동은 관련 제도변화에 영향을 받았으며, 양국의 기준금리의 차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분석됨.
 - 결국 원/위안 환율의 변동에 있어서 양국의 유동성의 차이가 중요한 설명변수였으며 위안/달러 환율 제도의 변동은 큰 영향을 주기 어려운 구조임.

3. 정책 제언

1) 대중국 투자에 대한 시사점

- 향후 중국 정부가 역외 채권시장을 육성하고 점진적이지만 역내 채권시장을 개방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중국은 2012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5%, 전체 교역량의 20%를 차지하는 주요 무역 상대국으로,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무역거래로 취득한 위안화를 운용할 수단이 필요함.
 - 우리나라 전체 수출에서 위안화로 결제한 비중은 아직까지는 0.2%인 133억 7,900만 달러(2012년 기준)에 불과하나, 이는 불과 3년 전인 2009년에 비해 약 40배 늘어난 수준으로 증가 속도가 매우 빠름.

- 특히 우리나라는 대중국 무역 흑자국으로, 구조적인 측면에서 위안화 자금 유입이 늘어날 가능성 이 큼.

- 역외에서 위안화 표시 채권발행을 통해 위안화로 자본을 조달하거나 무역거래로 취득한 위안화를 역외 위안화 표시 채권에 투자하는 등 역내·외 위안화 채권시장에 참여해야 함.

- 외환보유고의 투자 다변화 측면에서도 중국 국채는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고 재정건전성 측면에서도 미국 등 다른 선진국에 비해 비교적 건전한 편이기 때문에, 안정적이며 상대적으로 고수익을 누릴 수 있는 중국 국채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중국은 QFII(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RQFII(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등의 제도를 통해서 외국인의 중국 내 포트폴리오 투자를 허락하고 있음.
- 2002년에 시작된 QFII(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는 외국통화로 일정자격을 갖춘 외국투자기관이 상하이와 선전주식시장의 A주 투자를 허용하는 제도임.
- 2011년 12월에 시작된 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가(RQFII) 제도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위안화로 중국의 주식, 채권 등 금융자산에 직접 투자할 수 있음.
- RQFII의 투자한도는 시행당시에는 200억 위안에 불과했으나, 2012년 11월에 2,700억 위안으로 확대함.
- 2013년 3월에는 자격제한을 중국 증권, 자산운용사의 홍콩내 자회사로 한정하였으나 홍콩 소재의 외국계 금융기관 또는 자회사로 확대하였고, 최근에는 대만, 싱가포르 및 런던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함.

2) 중국 금융시장의 확대에 대한 시사점

- 첫째, 해외투자자들의 포트폴리오를 변화시켜 우리나라 채권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중국의 경우 상대적으로 금리가 높은 반면 여러 가지 위험요인이 상존하긴 하지만 경제 편디멘털도 양호한 상황으로 해외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투자처가 될 수 있음.
- 향후 중국 채권시장 개방 확대 시 우리나라 채권 수요가 약화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관련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음.

- 둘째, 중국 투자가의 해외투자 증가 측면에서는 한국에 대한 투자 증가가 예상됨.

- 아직까지 중국 개인투자자의 해외투자는 제한되어 있으며, CIC 등 중국 국부펀드나 QDII를 통한 해외투자가 가능함.
- 이러한 제약에도 불구하고 중국계 자금의 한국 채권투자는 2008년부터 급증하기 시작하여, 국내 유입 잔액이 2008년 약 3,538억 원에서 2012년 말에는 16조 9,440억 원으로 약 48배 증가함.

- 특히 채권시장 투자 증가세가 두드러졌는데, 우리나라 채권 보유 잔액이 2008년 796억 원에서 2012년 말에는 10조 7,920억 원으로 약 135배 증가함.
- 중국계 자금의 전체 외국인 보유금액 대비 비중도 0.2%에서 11.9% 수준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여 중국이 한국채권 보유국 3위로 부상함.
- 그러나 해외자본의 채권시장으로의 급격한 유입은 때로 대외여건 변화의 국내 파급효과를 증폭시킴으로써 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기도 함.
- 중국 투자자의 우리나라 투자 확대는 중국 경기변동의 영향력을 실물뿐만 아니라 금융부문까지 확대시킬 수 있으므로, 중국의 경제상황 등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중국계 자금의 투자가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정책을 강구해야 함.

● **셋째, 중국계 자금의 해외투자는 현재까지 민간에 의한 투자가 아닌 정부주도의 투자로, 향후에는 민간에 의한 투자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를 활용할 필요가 있음.**

- 중국계 자금의 우리나라 채권투자는 대부분이 국채 위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는 중국 정부의 외환보유고 운용자산 다변화 시도와 관련하여 CIC 등 중국 국부펀드의 투자로 해석됨.
- 향후에는 QDII 자격을 획득한 중국 민간 기관투자자들의 해외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를 유치하여 장기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3) 중국 위안화에 대한 시사점

● **첫째, 중국의 환율제도 변화는 위안화 국제화, 금리자유화와 함께 동시에 진행될 전망이며,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질 전망임.**

- 중국의 외환관리제도는 종합적인 성격의 법률 37개, 경상항목 27개, 자본항목 105개, 금융기관 69개, 위안화 환율 및 외환시장 24개, 국제수지 및 외환통계 33개, 외환검사 및 법규활용 16개, 외환과학기술관리 4개 등으로 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음.
- 향후 환율제도 개혁은 위안화 절상의 속도를 늦추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위안화 국제화를 빠르게 추진하는 양방향(two-way) 방식을 추구할 것으로 보임.

● **둘째, 원/위안 직거래 시장을 형성하여 향후 이를 적극 확대시켜 나가야 함.**

- 원/위안 직거래 시장은 현재 형성되어 있지 않으며, 가장 큰 원인은 거래수요가 많지 않기 때문으로 추정됨.
- 달리 대비 위안화의 가치가 급변하게 되면 자동으로 폭락 또는 폭등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됨.
- 원/위안 시장을 통해서 직거래가 활성화되면 실제 시장 가치를 정확히 반영하고 변동폭도 축소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현재 위안화외 직접 교환이 허용되는 화폐는 미 달러화, 일본 엔화, 호주 달러화, 영국 파운드화이며, 최근 중국정부는 위안화와 싱가포르 달러의 직거래 허용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엔/위안 직거래 시장은 2012년 6월 1일부터 일본과 중국의 은행간 외환시장에서 시작되었음.
- 이러한 시도는 중국, 일본에게 아시아 역내에서의 자국 통화 통용 가능성을 시험하는 것으로 보이며, 한국도 원화 국제화를 위해서는 이러한 원/위안 직거래 등을 시도해 보아야 함.
-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원/위안 직거래에 대한 반대 의견도 있으며, 소규모 개방경제인 한국에게 원/위안 직거래는 통제하지 못하는 변수를 증가시켜 환투기 위험이나 환율 변동성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는 지적임.
- 이러한 원/위안 직거래 시장 형성으로 인해서 원/위안 환율 결정에 있어 원/달러의 역할이 축소되고 한국과 중국의 무역, 금융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요인들이 확대될 것임.
- 현재는 위안화 환율제도의 유연적인 변화가 위안/달러 시장에 집중되고 있으며, 원/위안 환율에 있어서 원/달러 환율의 영향력이 더 큰 관계로 위안화 환율제도의 변화에도 원/위안 환율의 변동은 큰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
- 본 보고서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위안/달러 환율의 일일 변동 허용폭이 더 커진다고 하더라도 그 영향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음.
- 다시 말하면 관리변동환율제도를 유지하는 한 원/위안의 환율 결정에 있어서 추가적인 위안화 환율의 변동폭 확대의 영향은 미미할 것임.
- 그러나 중국이 위안화 국제화에 성공하다면 우리나라의 원화와 위안화의 직접교환 시장도 생성될 것이고, 위안화의 환율에 있어서 원/달러의 역할이 축소되고 두 나라 사이의 무역, 금융 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요인들이 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됨.

● 셋째, 한국도 역외 위안화 센터 설립에 대해서 고려해야 함.

- 2013년 10월 15일 런던은 영국, 중국 제5차 경제 및 재정금융대화에서 800억 위안의 RQFII(위안화 적격외국인기관투자자) 허가를 받았음.
- 홍콩, 상하이 이외에도 대만, 싱가포르, 도쿄 등의 아시아 지역 도시에다가 런던, 룩셈부르크, 파리, 두바이 등도 역외 위안화 센터 경쟁에 나서고 있음.
- 이에 반해 한국은 어떠한 역외 금융센터도 없는 상황이며 중국과의 지리적 이점,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잘 활용하여 역외 위안화 센터 설립에 대해서 반드시 다시 고려해 봐야 함.



[참고자료]

[표 2] QFII 자격을 획득한 우리나라 주요 기업

번호	기관명	위탁은행	투자한도		최초 승인일
			비준일	누계비준액(억 달러)	
1	푸르덴셜자산운용	건설은행	2008.05.04	0.75	2008.04.07
			2012.03.15	-0.75	
			소계	0.00	
2	미래에셋자산운용	공상은행	2008.09.02	1.50	2008.07.25
			2010.07.22	1.00	
			2013.05.03	1.00	
			소계	3.50	
			2008.11.07	1.50	
3	삼성자산운용	중국은행	2010.09.01	1.50	2008.08.25
			2012.08.21	1.50	
			소계	4.50	
			2009.08.10	0.70	
			2012.03.15	0.68	
4	한화자산운용	씨티은행	2012.09.19	1.00	2009.02.05
			소계	2.38	
			2009.11.09	1.00	
			2012.11.21	0.50	
			2013.08.28	-0.10	
5	산업은행	건설은행	소계	1.40	2009.04.23
			2009.12.30	0.50	
			2012.07.17	1.00	
6	우리은행	공상은행	소계	2.00	2009.05.04
			2009.12.30	0.50	
			2010.07.22	1.00	
7	한국투자신탁운용	공상은행	2012.05.17	-0.30	2009.12.11
			소계	0.70	
			2011.01.06	1.00	
8	동양자산운용	씨티은행	2012.12.26	1.00	2010.08.09
			소계	2.00	
			2011.10.19	1.00	
9	KB자산운용	씨티은행	2012.12.26	1.00	2010.12.28
			소계	2.00	
10	KTB자산운용	건설은행	2012.03.09	3.00	2011.12.21
			2012.03.09	2.00	
11	한국은행	HSBC	2013.06.24	2.00	2011.12.28
			소계	4.00	
12	한국투자공사	HSBC	2012.04.10	1.00	2011.12.31
			2012.03.09	1.00	
13	하이자산운용	공상은행	2012.03.09	1.00	2012.01.05
			2013.02.28	1.00	
14	신한BNP파리바자산운용	HSBC	2012.03.09	1.00	2012.03.29
			2013.05.03	0.70	
15	국민연금공단	씨티은행	2012.03.09	1.00	2013.03.22
			2013.10.31	0.70	
16	하나대투증권	건설은행	2012.03.09	1.00	2013.10.27
			2013.05.03	0.70	
17	동부자산운용	건설은행	2013.02.28	1.00	2013.10.31
			2013.10.27	0.70	
18	현대증권	건설은행	2013.05.03	1.00	2013.10.31
			2013.10.27	0.70	
19	하나UBS자산운용	씨티은행	2013.05.03	1.00	2013.10.31
			2013.10.27	0.70	

자료: 중국 증권관리감독위원회(CSRC)(<http://www.csrc.gov.cn/>), 중국 국가외환관리국(SAFE)(<http://www.safe.gov.cn/>)(검색일: 2013. 11. 27).



[표 3] 위안화 적격외국기관투자자(RQFII) 투자액 승인 상황표(2013. 11. 29 기준)

번호	분류	RQFII 명칭	누계 승인액
1		남방동영자산관리유한회사(南方东英资产管理有限公司)	261.00
2		가실국제자산관리유한회사(嘉实国际资产管理有限公司)	112.50
3		화하기금(홍콩)유한회사(华夏基金(香港)有限公司)	218.00
4		대성국제자산관리유한회사(大成国际资产管理有限公司)	19.00
5		회첨부자산관리(홍콩)유한회사(汇添富资产管理(香港)有限公司)	31.00
6		박시기금(국제)유한회사(博时基金(国际)有限公司)	46.00
7		해부통자산관리(홍콩)유한회사(海富通资产管理(香港)有限公司)	29.00
8		화안자산관리(홍콩)유한회사(华安资产管理(香港)有限公司)	39.00
9	채권	역방달자산관리(홍콩)유한회사(易方达资产管理(香港)有限公司)	187.00
10		공은서신자산관리(국제)유한회사(工银瑞信资产管理(国际)有限公司)	8.00
11		상투마근자산관리(홍콩)유한회사(上投摩根资产管理(香港)有限公司)	8.00
12		광발국제자산관리유한회사(广发国际资产管理有限公司)	24.00
13		국토서은자산관리(홍콩)유한회사(国投瑞银资产管理(香港)有限公司)	8.00
14		부국자산관리(홍콩)유한회사(富国资产管理(香港)有限公司)	13.00
15		낙안기금(홍콩)유한회사(诺安基金(香港)有限公司)	5.00
16		공은아주투자관리유한회사(工银亚洲投资管理有限公司)	8.00
합계			1,016.50
17		신은만국(홍콩)유한회사(申银万国(香港)有限公司)	19.00
18		안신국제금융증권유한회사(安信国际金融控股有限公司)	14.00
19		중국국제금융(홍콩)유한회사(中国国际金融(香港)有限公司)	17.00
20		국신증권(홍콩)금융주식유한회사(国信证券(香港)金融控股有限公司)	17.00
21		광대증권금융주식유한회사(光大证券金融控股有限公司)	27.00
22		화태금융주식(홍콩)유한회사(华泰金融控股(香港)有限公司)	19.50
23		국태군안금융주식유한회사(国泰君安金融控股有限公司)	33.00
24	증권	해통국제주식유한회사(海通国际控股有限公司)	49.00
25		광발주식(홍콩)유한회사(广发控股(香港)有限公司)	17.00
26		초상증권국제유한회사(招商证券国际有限公司)	17.00
27		중신증권국제유한회사(中信证券国际有限公司)	9.00
28		국원증권(홍콩)유한회사(国元证券(香港)有限公司)	15.00
29		중투증권(홍콩)금융주식유한회사(中投证券(香港)金融控股有限公司)	8.00
30		장강증권주식(홍콩)유한회사(长江证券控股(香港)有限公司)	2.00
합계			263.5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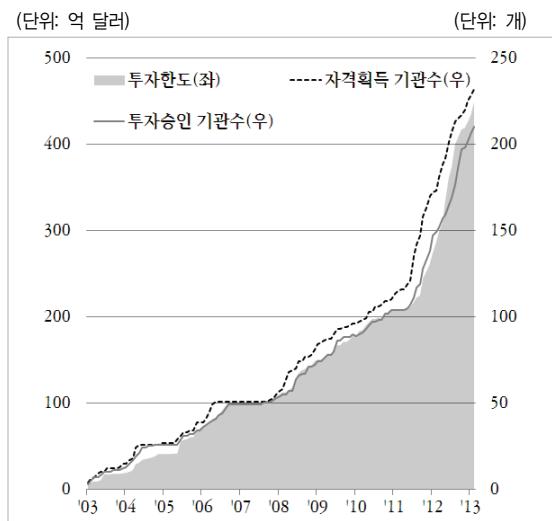
[표 3] 계속

번호	분류	RQFII 명칭	누계 승인액
31		건은국제자산관리유한회사(建银国际资产管理有限公司)	8.00
32		태강자산관리(홍콩)유한회사(泰康资产管理(香港)有限公司)	16.00
33		중국인수부란극림자산관리유한회사(中国人寿富兰克林资产管理有限公司)	10.00
34		농은국제자산관리유한회사(农银国际资产管理有限公司)	8.00
35		항생투자관리유한회사(恒生投资管理有限公司)	10.00
36		신달국제자산관리유한회사(信达国际资产管理有限公司)	8.00
37		흥증(홍콩)금융주식유한회사(兴证(香港)金融控股有限公司)	5.00
38		태평자산관리(홍콩)유한회사(太平资产管理(香港)有限公司)	8.00
39		중은홍콩자산관리유한회사(中银香港资产管理有限公司)	8.00
40		중국평안자산관리(홍콩)유한회사(中国平安资产管理(香港)有限公司)	10.00
41	기타	회풍환구투자관리(홍콩)유한회사(汇丰环球投资管理(香港)有限公司)	8.00
42		풍수투자관리(홍콩)유한회사(丰收投资管理(香港)有限公司)	8.00
43		교은국제자산관리유한회사(交银国际资产管理有限公司)	8.00
44		혜리기금관리홍콩유한회사(惠理基金管理香港有限公司)	8.00
45		남화자산관리(홍콩)유한회사(南华资产管理(香港)有限公司)	5.00
46		중국동방국제자산관리유한회사(中国东方国际资产管理有限公司)	10.00
47		동아은행유한회사(东亚银行有限公司)	10.00
48		동방금융주식(홍콩)유한회사(东方金融控股(香港)有限公司)	5.00
49		백서투자홍콩유한회사(柏瑞投资香港有限公司)	8.00
50		영풍금자산관리(아시아)유한회사(永丰金资产管理(亚洲)有限公司)	5.00
	합계		166.00
	총합계		1,446.00

자료: 중국 국가외환관리국, <http://www.safe.gov.cn>(검색일: 2013. 11.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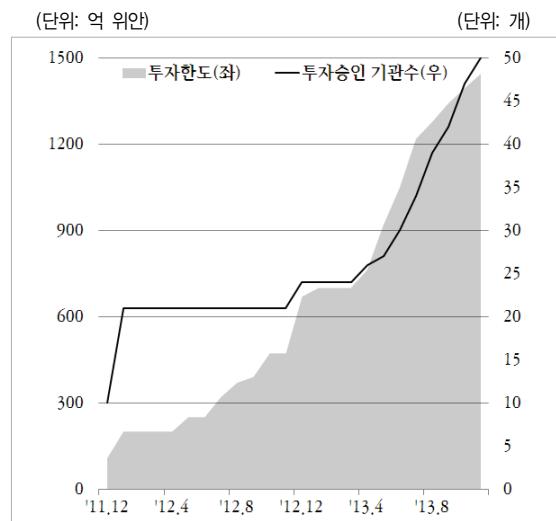


[그림 2] QFII 투자 허용 금액 및 기관 수



자료: CEIC DB. (검색일: 2013. 8. 23)

[그림 3] RQFII 투자 허용 금액 및 기관 수



자료: CEIC DB. (검색일: 2013. 12. 6)